산업통상부 | 보도자료 | APEC 2025 KOREA

보도시점 2025. 10.2.(목) 08:00 < 10.2.(목) 석간 > 배포 2025. 10. 1.(수)

통상리스크 속 수출모멘텀 유지에 정책역량 결집

- 산업부 장관, 무역협회 회장단 조찬간담회 개최
- 관세 피해기업 긴급경영지원·신시장 개척·산업경쟁력 강화 등 정부 지원방향 공유
- 무역협회에 현장애로 발굴, 정책제언, 글로벌 아웃리치 등 역할 당부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최근 美 관세 등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애로를 신속히 청취하고 민관이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무역협회 회장 및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정관 장관은 “올해는 美 관세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이 쌓아온 본원적인 제품 경쟁력과 시장다변화 노력 덕분에 우리 수출은 플러스를 유지하며, 경제성장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업계와 협회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어서, ”정부도 수출동력 유지를 위해 지난 9월 발표한 대책을 바탕으로 관세 영향기업 대상 13.6조원 규모의 단기 경영지원 강화, 글로벌 사우스 등 新시장 진출, 근원적 산업경쟁력 강화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지원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다만,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높고, 수출환경이 어려운 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모멘텀 유지를 위해 협회가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며, “美 관세 등 주요 통상현안에 민관이 원보이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채널을 활용한 아웃리치를 당부”하였다.

이에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미국 관세 관련 세부 조율이 진행 중으로 현장의 애로가 여전히 존재하며, 수출 다변화, 산업경쟁력 강화 등 중장기 과제도 남아 있다”고 언급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수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길 희망” 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태우	(044-203-4020)
		담당자	사무관	서두원	(044-203-402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PEC 2025 KOREA 10.27.~11.1. 경주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무역협회 회장단 조찬간담회 개요**

1. 개요

□ (일시) ‘25.10.2(목), 08:00~09:00

□ (장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5층 튤립홀

□ (참석자) 산업부 장관, 무역정책관
무역협회 윤진식 회장, 이인호 부회장

○ (무협 회장단)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회장, 송호근 와이지-원 회장, 최명배 엑시콘 회장, 박주봉 대주·KC 회장

2. 주요 논의 내용

❶ 美 관세 등 글로벌 무역·통상 리스크 공동 대응 방안

❷ 수출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3. 진행 순서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08:00~08:06	06′ (각3분)	산업부장관·무역협회장 모두 발언	
08:06~08:58	52′	업계 애로사항 청취	참석자
08:58~09:00	02′ (각1분)	산업부장관·무역협회장 마무리 발언	

* 산업부장관, 무역협회장 모두발언까지 공개